

일본군‘위안부’제도와 아메리칸 플랜의 조우*

金秀容**

- | | |
|--------------------------------|---------------------------|
| I. 들어가며 | IV. 특수위안시설협회(RAA)의 구성과 활동 |
| II. 미국 성정책의 변화 | V. 점령군 ‘위안소’-아카센-팡팡 |
| III. 일본군‘위안부’제도와 ‘아메리칸 플랜’의 조우 | VI. 「매춘방지법」의 제정 |
| | VII. 나가며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일본의 근대 공창제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관련성, 그리고 그것이 패전 후 점령군 ‘위안부’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1910년대 후반부터 시행된 ‘아메리칸 플랜’이라는 미군의 성 정책이 주둔지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폭되고 변화했다는 점을 일본이 패전 후 미군의 점령을 대비해 만든 특수위안시설협회(RAA)의 설립과 이후의 활동 내용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1945년 이후에 해외로 배치되는 미군들은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인종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낯선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미 본국의 성 정책에 기초하지만, 점령지 일본의 상황 하에서 본국과는 다른 GHQ의 정책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패전 후,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성의 방파제로’ 호출되었던 여성들이 일본 정부 시책과 이를 받아들여 안정적인 점령을 꾀했던 미군정의 성 정책 사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주변화되어가고 더 큰 폭력에 노출되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7055192).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수로

주제어 : 점령군‘위안부’, 미군 성 정책, 아메리칸 플랜, 공창제, 특수위안시설협회
(RAA), 성병관리

I. 들어가며

지난 2020년에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법정) 개최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각국에서 마련되어 법정의 성과와 의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0년 법정에서는 남북한이 공동기소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등 각국의 검사단이 일본군 성노예 제도를 고발했고, 64명의 피해생존자가 증언했다. 또한 법학자나 역사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이 증언했으며 구 일본군 병사 2명도 가해자로서 증언석에 섰다. 공소 사실에는 일본인 ‘위안부’ 피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쇼와 천황 히로히토(裕仁)와 일본 정부가 저지른 전쟁 범죄의 일부로서 일본인 ‘위안부’ 피해를 공소하는 것은 일본 국내에서도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¹⁾ 그러나 식민지 지배와 전쟁 범죄라는 틀에서 진행된 2000년 법정에서 가해국의 피해자인 일본인 ‘위안부’는 증인으로 서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피해자로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일본인 ‘위안부’가 직접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할 수 없었던 데는 ‘공창제’ 하의 매춘여성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²⁾ 자발적인 ‘상행위’로 매춘을 했던 여성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위안부’로 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또한 가해국인 일본의 제국주의에 일조한 식민본국의 여성이라는 점도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데 걸림돌이 됐을 것이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 귀국한 뒤에도 이러한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어진 미군점령 시기에는 다시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로 가장 먼저 모집의 대상이 되었다. 매춘여성들은 제국의 전성기에도, 제국이 몰락해 미국의 점령을 받은 최악의 순간에도 가장 먼저 폐기된 희생양인 동시에 사회구성원의 공공의 적 같은 존재로 각인되었다. 따라서 근대 공창제와 제2차 대전기의 일본군 ‘위안부’, 패전 후의 미군 ‘위안부’ 문제를 개별적인 사안으로

1) 심아정, 「일본인 ‘위안부’문제를 어떻게 공공화할 것인가-‘공인’과 ‘은폐’의 연속성을 묻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전시성폭력과 공공역사 포럼, 2020, 1면.

2) ‘매춘(賣春)’이라는 개념이 성매매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는 문제적인 개념이지만, 당시에 제정된 법령 등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당시의 인식을 표현하는데에도 유용한 지점이 있어, 이 글에서는 맥락에 따라 ‘매춘’과 ‘성매매’를 혼용하기로 한다.

파악하기보다 연속적인 시선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근대 공창제도를 존속시킴으로써 군‘위안부’ 제도가 발전했고,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인적인 측면에서의 연속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2000년 법정에서 일본 측 검사단의 전문가 증인 중 한 사람이었던 후지메 유키(藤目ゆき)를 비롯해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히라이 가즈코(平井和子), 하야시 히로시(林博史) 등이 대표적이다.

요시미 요시아키는 『매춘하는 제국(買春する帝国)』에서 각 시대의 성매매에 관한 세계적 경향을 일본이 어떻게 수용하고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갔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메이지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인신매매에 의해서 유지되던 근대 일본의 공창제가 제국의 형성과 확대와 함께 변모하여 최종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거쳐 점령기의 미군‘위안부’ 제도에 이르는 역사성을 파악했다. 그리하여 성매매를 여성의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로 규정하고 여성의 억압을 문제시하지 않는 사고방식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도 방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후지메 유키는 성과 생식을 둘러싼 근현대 일본의 국가적 통제와 이를 둘러싼 사회운동의 역사를 공창제와 낙태죄 체제를 축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체제가 어떻게 근대국가 건설과 자본주의 전개에 기여했고, 사람들의 성과 생식을 규정했는가를 고찰했다.³⁾ 히라이 가즈코는 일본군 ‘위안소’와 점령군을 대상으로 한 ‘위안시설’ 및 아카센(赤線)⁴⁾과의 연속성을 밝히고 있다.⁵⁾ 일본군 ‘위안소’와 점령군 ‘위안소’ 사이의 발상의 연속성, 시스템의 연속성, 인적구성의 연속성을 파악하여 군사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레토릭으로 사용된 ‘출산하는 성’과 ‘쾌락의 성’⁶⁾으로 여성을 이분화한 것에 대한 반성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초월을 요구한다.

또한 하야시 히로시는 미군의 내부자료를 분석하여 미군이 장병들의 성매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대책을 취해 왔는지 1차 대전 이래 1950년대까지의

3) 후지메 유키 저, 김정자·윤경원 역, 『성의 역사학-근대국가는 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삼인, 2004.

4) GHQ가 공창폐지령을 내린 1948년부터 매춘방지법이 시행된 1958년까지 특수음식점가라는 이름으로 매춘이 공공연히 행해지던 지역.

5)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 센터 편. 번역공동체 잇다 역, 『일본인 ‘위안부’- 애국심과 인신매매』, 논형, 2021.

6)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 센터, 앞의 책, 113면.

역사적 변동을 추적했다.⁷⁾ 그리하여 점령군 ‘위안 시설’이 패전을 맞은 일본의 점령군에 대한 일방적인 ‘선물’이 아니라 미군의 성병 감염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성 정책의 일환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근대 공창제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관련성 그리고 패전 후 점령군 ‘위안부’로 이어지는 사실을 중요한 지점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상의 연구들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패전과 동시에 일본이 점령군 ‘위안소’를 미군에 제안하고 이를 미군정이 받아들여 점령군 ‘위안소’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전 이후 일본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점령군 ‘위안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속성이나 미군의 성 정책이라는 각각의 문제의식으로만 파악해서는 그 실상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는 전시(戰時)와 평시(平時)라는 환경적 문제도 있고, 전쟁 중 일본이 단독으로 시행했던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달리, 점령군 ‘위안소’의 설치와 운용에는 GHQ의 성 정책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19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른바 ‘아메리칸 플랜(American Plan)’이라는 공중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된 법률과 관행이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아메리칸 플랜이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실시된 제한된 공중보건 대응이라고 파악하고 있지만, 스콧 W. 스텐(Scott W. Stern)은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계속된 여성과 질병에 대한 태도, 법체계 그리고 집행 절차의 모음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장기’ 아메리칸 플랜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⁸⁾ 따라서 이 글은 스콧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앞서 언급한 일본의 근대 공창제와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연관성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성과들의 도움을 받아 아메리칸 플랜에 입각한 미군의 성 정책이 일본이라는 점령지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폭되고 변화했다는 점을 특수위안시설협회(이후

7) 林博史, 「アメリカ軍の性対策の歴史-1950年代まで」 『女性・戦争・人権』 10, 「女性・戦争・人権」 学会学会誌編集委員会, 2005.

8) 아메리칸 플랜에 대해서는 David J. Pivar “Purity and Hygiene: Women, Prostitution, and the ‘American Plan,’ 1900-1930” Greenwood press, 2002, ‘장기 아메리칸 플랜’에 대해서는 Scott W. Stern “The Long American Plan: The U.S. Government’s Campaign Against Venereal Disease and Its Carriers” Harvard Journal of Law and Gender, Vol. 38, No. 2, 2015, pp.373~436을 참조. ‘아메리칸 플랜’이라는 명칭의 기원은 감염 예방 효능에 대한 국가적 자부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위생사들은 19세기 초 프랑스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행된 ‘규제를’ 언급한 ‘유럽 플랜’과 구별하기 위해 이 명칭을 사용했다. Scott W. Stern 위의 논문 주.8 p.374.

RAA로 개칭)의 설립과 이후의 활동 내용을 통해 증명할 것이다. 특히 1945년 이후에 해외로 배치되는 미군들은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인종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낯선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 본국의 성 정책과는 또 다른 GHQ의 정책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⁹⁾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패전 후,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성의 방파제로’ 호출되었던 여성들이 일본 정부 시책과 이를 받아들여 안정적인 점령을 꾀했던 미군정의 성 정책 사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주변화되어가고 더 큰 폭력에 노출되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일본의 식민지배 이후 미군정을 경험한 한국에서 시차를 두고 유엔 ‘위안부’와 한국군 ‘위안부’가 등장한 ‘식민지성’에 대한 고찰의 선행 작업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시아 국가 출신의 여성들이 일본과 한국에 들어와 미군과 양국의 성산업에 종사하는 현재의 상황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II. 미국 성 정책의 변화

근대 공창제도의 핵심은 성병검진을 축으로 한 매춘관리이다. 나폴레옹 시대의 프랑스에서 시작하여 19세기 이후로 구미 군국주의·제국주의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병사들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들이 성병 감염에 대한 불안 없이 여성으로부터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성병검진을 통해 ‘안전’한 여성을 매춘여성으로 등록하여 당국이 보증해주는 군대보호정책으로 환영받았다.¹⁰⁾

미국도 19세기 남북전쟁 당시 북군이 남부의 몇몇 도시에서 창부를 등록하여 성병 검진을 한 경험은 있지만, 육군 전체가 성병 문제를 본격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육군의 수가 2만여 명 정도라 크게 문제 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에서 성병에 대한 관심이 초기에는 ‘비도덕적’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된 남성이 여성의 건강과 출산에 영향을 주어 가족제도를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다뤄졌다.¹¹⁾ 이리

9) 문승숙·마리아 혼 편, 이현숙 역, 『오버 데어: 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미군 제국과 함께 살아온 삶』, 그린비, 2017, 21면.

10)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센터 편, 강혜정 역, 『일본의 군 ‘위안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1, 60면.

11) Brandt Allan M. “No magic bullet: a social history of venereal disease in the United States since

한 상황은 19세기 말 순결-사회정화운동이 고양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3년에 이 시기 사회운동의 두 조류, 즉 의사들이 주도한 성병예방운동(American Federation for Sex Hygiene)과 사회개혁가들이 이끈 성매매 반대운동(American Vigilance Association)이 결합하여 성매매 금지와 성병 구제를 목적으로 한 미국사회위생협회(American Social Hygiene Association)의 창설로 이어졌다.¹²⁾ 협회의 설립목적은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 및 공공의 윤리성을 지지하고, 상업화된 악을 억제하는 것”이었다.¹³⁾ 이처럼 성병 감염이 ‘사회악’ 즉 매춘을 통해 전파되는 ‘사회적 질병’이라는 이 시기의 성병에 대한 인식이 미군의 성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초기에는 성병 문제가 주로 가족제도를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다뤄졌다면, 제1차 전쟁이 시작되면서 군의 병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 미군을 둘러싼 상황이 급격히 변했다, 하와이합병을 시작으로 쿠바섬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스페인과의 전쟁, 의화단 운동의 결과 하와이, 중국, 필리핀, 쿠바 등 세계 각지에 미육군의 주둔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미육군 장병의 성병감염율도 높아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로 성병으로 인한 입원율이 1897년 1,000명당 84.59명에서 1910년에는 1000명당 196.99명으로 대폭 증가했고,¹⁴⁾ 성병 치료 기간에는 근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병으로 인한 병력손실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미육군성은 1912년 5월 성병대책(미육군성 일반명령 제 17호)을 전군에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춘은 부도덕한 행위이고 대부분 성병에 걸리며, 성병이 무서운 병임을 장병에게 교육할 것.

188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32.

12) 박정미, 「금욕에서 예방으로: 2차 세계전쟁기 미군의 성병통제, 생명권력과 젠더」, 『경제와 사회』, 113, 비판사회학회, 2017, 241면.

13) Walter Clarke, “The American Social Hygiene Association,” Public Health Reports 70(4) (1955), p.424. 김서형, 「20세기 초 혁신주의 개혁과들과 성병 통제 정책」, 『동서인문』 15,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21에서 재인용. 김서형은 20세기 초 미국에 만연했던 성병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 위생개혁(의사), 윤리개혁(여성 개혁가), 법제개혁(연방정부)을 추구했던 혁신주의 개혁가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졌다고 본다.

14) Brandt Allan M. 앞의 책, p.98.

2. 성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병사가 부대로 돌아왔을 경우(즉 성매수에서 돌아온 경우), 즉시 소독예방책을 취하도록 할 것. 만일 병사가 소독예방책을 취하지 않고 성병에 걸렸을 경우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군법회의에 회부할 것.
3. 불시에 월 2회 신체검사(성병검사 포함)를 철저히 할 것.¹⁵⁾

명령이 내려진 지 3개월 후에는 “마약이나 술, 그 밖의 불품행으로 인하여 근무에서 벗어난 자는 그동안의 급여를 금지”하는 것이 의회에서 승인되어 2년 뒤에는 항구법(恒久法)이 되었다. ‘성병’이라는 단어를 법률에 넣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그 밖의 불품행’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성병이 포함된다고 해석했다.¹⁶⁾ 1912년에 내려진 일반명령 제17호는 줄곧 미군 성 정책의 기본 방침이 되었다. 즉 미군의 성 정책은 성매매는 부도덕한 일이라는 도덕적 관점을 강조하여 성병에 걸리면 군법회의에 회부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등 처벌로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동시에, 군이 성매매하는 사람에게는 예방책을 마련해 병력손실을 줄이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성병예방을 주도해 온 미국위생사협회의 운동방침인 도덕적 차원에서의 성매매 반대와 위생과 공중보건 차원에서의 성병 예방이라는 두 축이 미군의 성병 예방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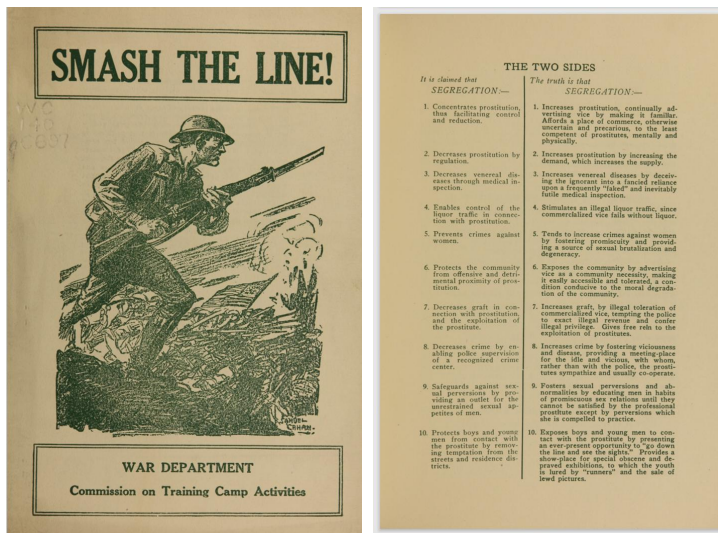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군이 참전하면서 1917년에는 일반명령 제17호의 내용에 기지 주변에 매춘업을 금지하여 창부를 배제하는 방침이 실시되었다. 창부를 배제하면서 동시에 성병에 대한 경각심을 영화나 팸플릿 <그림 1>¹⁷⁾ 등으로 교육했다. 또한 병영 5마일 안에서는 어떤 여성이라도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된 여성은 시민권을 정지당하고 성병 감염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치료를 위해 수용소에 수감되는 이른바 ‘체임벌린-칸’ 법¹⁸⁾이라는 공중보건법이 제정되었다.¹⁹⁾ ‘체임벌린-칸’ 법은 아메리칸 플랜의

15) AMB, No.67, p.92. 林博史, 앞의 논문, 96면에서 재인용. 이 글의 미군 데이터는 The Army Medical Bulletin(이하 AMB로 약기) 각 호에서 No.67(May 1943)은 미육군의 성병 대책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가 된다.

16) 林博史, 앞의 논문, 97면.

17) 1917년 미육군성이 제작하고 미국사회위생협회가 배포한 팸플릿 <smash the line>에서는 매춘, 술, 성병을 후방의 ‘삼중동맹’이라 표현하며, 전방의 적만큼이나 중요한 적이라 표현하고 있다. 또한 ‘홍등가(line)’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smash the line> 3면.

일환으로 미국 전역에 성병퇴치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되었다.²⁰⁾ 이에 따라 성병에 감염된 여성은 '독일의 항공부대'보다 해롭다고 인식되어, 창부나 부도덕한 여자로 여겨지는 여성은 체포하여 강제로 검진했다.²¹⁾ 아메리칸 플랜은 연방 정부나 지방 관리들이 성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여성을 강제로 검진하고, 완치될 때까지 무기한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되었다. 성병에 걸린 걸 알면서도 성매매를 한 병사나 매춘업자, 알선업자, 장교를 상대하는 여성 등은 처벌받지 않고, 가창이나 하층 창부만을 처벌하는 '아메리칸 플랜'에는 성적·계급적 차별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림 1〉 미군의 성병예방 및 통제 팸플릿

- 18) 1918년 7월 9일 제65회 미국의회에서 통과한 체임벌린-칸 법(The Chamberlain-Kahn Act of 1918 is a U.S.)에 성병을 막기 위한 공중보건프로그램이 시행되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아메리칸 플랜'이라 한다. Anne Cipriano Venzon, ed. (2013). The United States in the First World War: An Encyclopedia. Routledge. p.36. 주요 내용은 성매매를 대체할 수 있는 건전한 오락의 제공, 부대주변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억압, 성병감염 군인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로 구성되었다(박정미 앞의 논문, 209~210면).
- 19) 후지메 유키, 앞의 책, 87면.
- 20) 김서형, 앞의 논문, 503면.
- 21) 林博史, 앞의 논문, 97면.

제2차 세계대전기에도 미국사회위생협회는 공중보건국, 미군과 함께 성병 통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그 결과 1940년 9월 「8개조 협약」이 공포되었다. 협약의 내용은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 성병 환자와 접촉한 군인과 감염원(source of infection)²²⁾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보고, 감염자 격리, 성매매 억압, 군인과 민간인 대상 성병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협약에 그치지 않고 1941년에는 군 시설 주변에 성 판매와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인 「메이 법」(May Act)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메이 법」의 제정은 군 시설 주변의 성매매에 한하여,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연방 정부에 있음을 명시하는 법안이었다.²³⁾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기 미군의 성 정책은 기본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기에 형성된 정책을 기초로 성립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기 미군의 성 정책은 도덕적 관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우선 성병 예방과 치료의 효율을 중시했다. 병사가 금욕에 실패하더라도 성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 도구를 제공했는데, 기계적 예방 도구인 콘돔, 화학적 예방 도구인 비누와 약품, 그리고 성기를 소독할 수 있는 예방소를 곳곳에 설치했다.²⁴⁾ 그리고 성병에 걸려 근무할 수 없게 된 병사를 군법에 회부하거나, 급여를 삭감했던 병사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신속치료센터(Rapid treatment centers)를 설치하여 성병이 의심되는 여성들을 검진하고 구급·치료하는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페니실린의 개발로 여성들이 구급되는 시간이 조금 짧아졌다는 것이었다.²⁵⁾ 이렇듯 미군의 성 정책은 성매매를 범죄화하여 금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병 예방책을 준비하는 태생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순은 주둔지의 성매매에 대한 국가정책이나 사회 인식에 따라 다른 정책을 펴게 했다. 따라서 군대의 존재 방식이 주둔지의 현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정책과 실태를 더욱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22) 이 정책의 시행은 한국의 기지촌 여성들이 일명 ‘컨택 짝기’라고 기억하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미군의 성 정책은 일본 뿐 아니라 해방 후 한국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박정미, 앞의 논문, 236면).

23) 박정미, 앞의 논문, 242~243면.

24) 박정미, 앞의 논문, 244면.

25) Scott W. Stern, 앞의 논문, p.413.

Ⅲ. 일본군‘위안부’제도와 ‘아메리칸 플랜’의 조우

전후 일본 사회에서 특정한 섹슈얼리티의 관습들이 유지된 이유를 알려면, 우선 일본의 근대 공창제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창제란 공권력이 매춘을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 제도는 고대로부터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재정수입이나 치안 유지라는 권력자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제도가 이용되어 왔다.²⁶⁾ 에도시대부터 유곽을 허용했던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성매매 집결지를 재편하는 형식으로 근대 공창제도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청일전쟁·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 국내외에서 근대 성매매가 확산해, 군사 거점 지역 주변에는 근대 전용 유곽이 들어섰다.²⁷⁾ 군이 직접 전장에 ‘위안소’를 설치하기 이전에 오랜 시간 근대 성매매의 전사(前史)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패전처리를 위해 히가시쿠니노미야(東久邇宮) 내각이 성립했다. 새로 들어선 내각은 일본군대가 다른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에게 자행했던 잔인한 행동을 기억하며, 미점령군의 성폭력을 우려해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국무대신이었던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가 경시총감 사카 노부요시(坂信弥)²⁸⁾를 불러들여 한 말에는 당시 일본 정부가 무엇을 가장 불안하게 생각했는지 명백히 드러난다.

“점령군이 들어올 때까지는 국체(천황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천황의 신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분명하지 않다.”²⁹⁾

26)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센터, 앞의 책, 59면.

27) 예를 들어 마이즈루(舞鶴)의 류큐(龍宮) 유곽에서는 1918년 해병들이 유흥비 인하를 요구하며 창기불매동맹을 결성했다고 한다. 이처럼 이용자가 군으로 한정된 유곽이 일찍부터 존재했다(후지메 유키, 앞의 책, 303면).

28) 당시 경시총감이었던 사카 노부요시는 1936년 4월부터 1937년 6월까지 가고시마현의 경찰부장을 역임했는데, 이때 해군항공대원을 대상으로 한 ‘위안’ 시설 설치를 주도한 경험이 있다. 그때의 경험이 RAA성립의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芝田英昭, 『占領期の性暴力 戦時と平時の連続性から問う』, 新日本出版社, 2022, 51면.

29) 도우스 마사요 저, 노길호 역, 『패자의 선물』, 구월, 1992, 23면.

“나는 패전보다는 좌익혁명을 두려워한다. 패전은 국체를 유지할 수 있으나, 혁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³⁰⁾

새로운 내각의 가장 큰 관심은 국체 즉 천황제 유지에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다가올 연합군의 점령이 ‘무혈진주(無血進駐)’여야만 했다. ‘일반’ 여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연합군에 대한 시민의 적개심이 높아져 공산혁명으로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점령군으로부터 일본의 ‘일반’ 여성을 지켜줄 ‘성의 방파제’로서의 여성이 필요해졌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평화적’인 점령을 위해서 ‘패자의 선물’로 자국의 여성을 바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³¹⁾ 고노에의 의향을 들은 사카는 방파제가 될 점령군용 ‘위안소’ 설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8월 18일 내무부 경보국장 이름으로 각 지역 경찰 책임자에게 「외국군 주둔지에서 위안시설에 대하여」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관할 지역에 주둔군의 점령을 대비하여 ‘위안소’ 설치를 미리 준비하고 외부에는 비밀로 하라는 내용의 지시였다. 이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외국 주둔군 위안시설 정비요령

1. 외국 주둔군에 대한 영업행위는 일정한 지역으로 한정하여, 종래의 단속 기준과 관계없이 이를 허가한다.
2. 전항의 구역은 경찰서장이 설정하도록 하고, 일본인의 시설이용은 금지한다.
3. 경찰서장은 다음의 영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를 실시해, 설비에 충실을 기하도록 한다.
 - 성적위안시설
 - 음식시설
 - 오락장
4. 영업을 위해 필요한 부녀자는 예기, 공창 및 사창녀, 여급, 작부, 상습밀매범 등을 우선으로 할 것.³²⁾

30) 도우스 마사요, 앞의 책, 24면.

31) 惠泉女学園大学平和文化研究所 編, 『占領と性：政策・実態・表象』, インパクト出版会, 2007, 7면.

32) 惠泉女学園大学平和文化研究所, 앞의 책, 49면.

이 통첩을 받고 전국 점령군 주둔지역에 점령군을 대상으로 하는 ‘위안소’가 속속 설치되었다. 일본군 ‘위안부’를 징집할 때 그 대상이 일본 국내의 공창이었던 것처럼 점령군 ‘위안소’에서 일을 시킬 여성을 찾을 때 다시 유곽으로 눈을 돌렸다. 위의 지시처럼 공창(창기) 여성뿐만 아니라 사창 또는 가창(街娼), 여급, 작부, 상습밀매범에 이르기까지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광범위하게 그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전후에 흩어진 이 여성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업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에 사카의 명령을 받은 경시청 보안과장 다카노리 샤쿠토쿠(高乘稔得)는 도쿄 요리음식점 조합장을 불러 “연합군 장병을 위안하기 위해 각종 시설을 만들기로 각의에서 결정했다.”, “정부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테니 반드시 민간에서 주도하기 바란다.”라고 간원했고, 업자 측도 “4천만 야마토나데시코(大和撫子)의 순혈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승낙했다. 이러한 경위로 대장성을 경유하여 일본권업은행(日本勸業銀行)³³⁾으로부터 5,000만 엔을 융자받아 경시청의 주도하에 도쿄도 산하 접객업 7개 단체가 8월 23일 특수위안시설협회(한 달 후 RAA: 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로 개칭)를 설립했다.³⁴⁾ 패전 후 열흘 남짓한 시간에 이뤄진 일이다. 이 협회의 목적은 관동지역 주둔군 장교 및 일반 병사를 위한 위안 시설의 설치였고, 그 예산이 권업은행에서 대출되었다는 점이 특수‘위안소’의 설립이 국책사업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점령군 주둔지역에 전반적으로 점령군 ‘위안소’가 설치되었는데, 도쿄도와 마찬가지로 지역에서도 특수위안시설협회라는 이름을 붙여 사업을 진행한 곳도 있어서 RAA를 전국적인 조직으로 생각하지만, RAA는 도쿄도 중심으로 설치되었고 지역의 협회들과는 별개의 단체였다. 따라서 RAA 조직이 없었던 지역에서는 현(県)과 경찰이 업자를 움직여 위안소를 개설하는 유형이 많았다.³⁵⁾ 예를 들어 일본 정부로부터

33) 이후에 합병해 제일권업은행으로 개칭. 1950년 일반은행으로 전환할 때까지 일본권업은행법에 근거해 채권을 발행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산업, 농업부문에 융자를 실시했다.

34)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 센터(2021)의 히라이 가즈코의 글에는 5천만 엔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도우스 마사요(1992)는 1차 3천만 엔, 2차 300만 엔으로 총 3천 3백만 엔이 권업은행에서 대출되었다고 한다. 초기 예산이 1억 엔으로 책정되었으나 전부 집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5) 아오모리(靑森)현, 오카야마(岡山)현, 히로시마(廣島)현이 ‘특수위안시설협회’라는 이름을 붙여 사업을 실시한 지역이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 때문에 경찰이 직접 ‘위안소’를 개설하고 나중에 업자에게 조합을 만들게 하여 경영을 맡긴 경우가 요코하마시, 이바라키현, 에히메(愛媛)현, 이와테현이다.

천황이 있는 도쿄에 점령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요코하마(横浜)에 묶어두라는 명령을 받았던 가나가와(神奈川) 현에는 RAA의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부 보안과가 특수위안시설 설치를 위해 움직였다. 기존의 성매매 업자들을 통해 여성들을 모으고, ‘위안소’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고,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데에도 경찰이 관여했다.³⁶⁾ 당초 1억 엔의 예산 가운데 도쿄 RAA가 용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렇듯 RAA 조직이 없는 지역의 경찰이 위안 시설을 설치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부분은 향후 사료의 연구로 더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일본의 ‘민주화’를 위해 점령한 연합군(미군)³⁷⁾도 ‘민주적 해방군’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미본국의 육군성 성 정책은 금욕정책, 즉 성매매 금지를 기조로 하지만, 그것이 연합국 총사령부(GHQ:General Headquarters)의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점령 전까지 미군의 성 정책을 담당한 기관은 육군의무부(MS)였으나, 일본 점령을 시작하면서 군사점령의 틀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대응이 필요해 1945년 10월 2일 새로운 조직인 공중위생복지국(Public Health and Welfare Section)이 신설되었고, 책임자는 샘스 대좌(Crawford F. Sams)였다.³⁸⁾

샘스는 맥아더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본국의 성매매 금지 정책이 현지에서는 적용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인물이었다. 오히려 병사들의 위안을 위하여 성매매를 용인하면서 성병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침착 지역이 존재하는 편이 성병 예방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점령군 ‘위안소’를 준비한 일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공중위생복지국 담당자는 RAA ‘위안소’³⁹⁾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9월 28일에는 도쿄도 위생국 방역과장인 요사노 히카루(与謝野光)를 불러 “도쿄에 있는 기존의 모든 위안 시설을 사용한다.”라며 기존의 매춘지역을 지적하도록 했다. 이때 요사노는 무코지마(向島), 요시초(芳町), 하쿠산

36) 川元祥一, 『開港慰安婦と被差別部落 戦後RAA慰安婦への軌跡』, 三一書房, 1997, 28~30면.

37) 일본에 주둔한 연합군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군대 등도 포함되었지만, 미군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연합군대가 맥아더의 지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 정책을 미점령군의 정책으로 봐도 무방하다.

38) 惠泉女学園大学平和文化研究所, 앞의 책, 25면.

39) RAA(특수위안시설협회)는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었으나, 이후 특수위안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각지에서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도쿄도 RAA가 설치한 위안소는 RAA ‘위안소’로 각 지역의 위안소는 점령군 ‘위안소’ 또는 특수 ‘위안소’를 혼용한다.

(白山) 등의 예기 지역을 장교용, 요시하라(吉原), 시나가와(品川) 등의 공창지대를 백인 병사용, 가메이도(亀戸) 등의 사창지대를 흑인 병사용으로 제안했다고 한다.⁴⁰⁾

이와 동시에 도쿄도 위생국에 “도지사(都知事)는 책임지고 주둔 군대가 성병에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도의 책임 아래 검진을 엄중하게 하도록”⁴¹⁾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요사노는 바로 도쿄도령 제1호와 경시청령 제1호에 의거해 「성병예방 규칙」을 제정해서 성매매 여성으로 간주되는 여성에 대해 강제로 성병검진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GHQ 위생정책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성매매를 기본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매매 여성의 성병 검진을 요구하는 금지와 예방이라는 모순과 장병의 성매매를 전제로 하면서도 장병의 책임은 묻지 않고 여성에게만 성병 감염의 책임을 떠넘기는 ‘위생의 이중잣대’가 작동하는 것이다.⁴²⁾ GHQ는 본국의 성매매 금지라는 성 정책에 명백히 어긋나지만, 일본 정부의 특수‘위안소’를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 성병 예방을 위해 일본 정부에 성병검진을 명령하는 형식으로 성 정책을 수립해나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주도하여 조직된 특수‘위안소’ 운영은 공식적으로 연합군 본부의 지휘하에 있었다.⁴³⁾ 미 주둔군은 헌병, 성병검사 의무화, 미국의약품 사용, 미 제8군 소속 육군 군의관 및 헌병 사령관을 통해 특수‘위안부’를 감독했다. 이처럼 미군의 점령은 일본군‘위안부’제도를 바탕으로 한 점령군‘위안소’ 제도와 원칙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성병예방책을 준비하는 이른바 ‘아메리칸 플랜’이 조우하면서 시작되었다. 점령의 시작은 일본 여성에 대한 미군의 성적 유린의 시작이었다.⁴⁴⁾

40) 吉見義明, シリーズ日本の中の世界史 『買春する帝国: 日本軍「慰安婦」問題の基底』, 岩波書店, 2019, 223면.

41) 후지메 유키, 앞의 책, 310면.

42) 후지메 유키, 앞의 책, 310면.

43) 따라서 RAA는 헌병사령부의 의향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으며 RAA‘위안소’에서 출입하는 미군이 문제를 일으키면 업주가 MP(육군 헌병)이나 SP(해군 헌병)의 출동을 요청했다. 이처럼 미군 헌병이 위안부를 요구하는 미군 병사의 질서유지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도우스 마사요, 앞의 책, 61면.

44) 문승숙·마리아 혼, 앞의 책, 143면.

IV. 특수위안시설협회(RAA)의 구성과 활동

특수위안시설협회로 출범한 RAA는 점령 직후에 일본 정부가 미군의 주둔을 대비해 만든 점령군‘위안소’로 알려져 있다. 1946년 RAA 소속 위안소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협회를 해산하여 그 존재는 익숙하지만, 어떤 업체들이 주체가 되어 조직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RAA는 도쿄도 내의 ‘위안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락시설, 유흥시설의 업체 대표가 모여서 설립했고, RAA가 해산한 이후에도 협회를 만든 주요 인사들이 정책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며 연맹을 만들어, 일본 정부와 GHQ 공중보건위생국의 정책에 긴밀히 협조했기 때문에 RAA의 업체 구성과 주요인물에 대해 살펴볼 가치가 있다.

경시청의 주도하에 도쿄 산하 7개 단체인 전국 예기집(芸妓屋) 동맹회 도쿄지부 연합회(예기집), 도쿄 유곽조합(요시하라 등 공창계), 도쿄도 접대업조합 연합회(고이와 등의 산업전사 위안소)⁴⁵⁾, 도쿄도 위안소 연합회(다마노이 등 사창계), 도쿄 유기장 조합연맹(마작) 그리고 미야자와 하마지로(宮沢浜次郎)가 조합장으로 있는 요리음식점 조합 등의 대표자들이 모였다.⁴⁶⁾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협회의 목적이 특수‘위안소’ 설치였으나 협회의 주축이 된 것은 성매매와 관련이 없는 요리음식점 조합의 인사들이었다. 협회의 기획에 매춘업자들이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했으며, 당국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철저히 피했다. 점령군‘위안소’ 설치라는 중대한 임무를 매춘업자가 아닌 요리음식점 조합에 맡긴 것은 점령군‘위안소’가 돈벌이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 또한 매춘시설업자들이 전면에 나서 점령군‘위안소’ 설치라는 당국의 목적이 표면화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리음식점 조합의 미야자와 하마지로가 협회의 이사장을 맡았고, RAA를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한 사람은 쓰지 미노루(辻稯) RAA 전무이사였다. 쓰지는 1억 엔의 자본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당국이 요청한 ‘위안소’ 시설 설치 이외의

45) 계속되는 공습으로 대부분의 매춘업자가 속속 폐업했지만, 도쿄도 접대업조합 연합회만은 전시 중에 새로 만들어졌다. 도쿄 근교의 군수 공장에 동원된 젊은 징용공들을 대상으로 ‘위안소’를 만들라는 군부의 지시로 경시청이 다치카와(立川), 다테이시(立石), 신코이와(新小岩) 등의 공장지대에 신설하게 하여 업자들이 만든 것이 이른바 ‘산업전사 위안소’이다(도우스 마사요, 앞의 책, 38면).

46) 도우스 마사요, 앞의 책, 38면.

시설을 포함하여 점령군을 위한 종합 문화·오락시설을 만들고 싶어했다. 따라서 공창계나 사창계 뿐만 아니라 요리음식점 조합, 마작 조합의 대표들도 이 협회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 담당자는 본래의 목적인 ‘성의 위안’에 국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점령군의 주둔지로 예상되는 곳에 ‘위안소’ 설치를 서둘렀다. 협회가 처음 염두에 두었던 건물은 긴자(金座)의 미쓰코시(三越)백화점 건물이었으나 거절당해,⁴⁷⁾ 미군의 진주 경로로 예상되는 오모리(大森) 해안에 원래 요정이었던 ‘고마치엔(小町園)’을 빌려 점령군 진주 전날인 8월 27일에 제1호 점령군 ‘위안소’를 열었다.⁴⁸⁾

쓰지의 계획으로는 예기, 매춘부, 작부, 댄서, 여급 등으로 5천 명을 모을 예정이었으나, 당국은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일반’ 여성을 지키기 위한 ‘방파제 건설’이었으므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을 모을 것을 종용했다. 따라서 ‘고마치엔’의 ‘위안부’는 38명의 공창 여성으로 요시하라, 센주(千住), 다마노이(玉井), 가메이도 등의 공창계, 사창계 업자들이 책임지고 모집했다.⁴⁹⁾ 그러나 점령군의 수에 비해 기존 창기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지자, 1945년 8월 29일부터 31일 사이에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등에 특수위안시설협회 이름으로 광고를 싣는다. “금주 특별여자종업원모집”이라는 제목의 광고에는 “의식주 및 높은 급여 지급, 전차 가능, 지방 응모자에게는 여비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다.⁵⁰⁾

‘높은 급여’란 대략 포주와 매춘여성이 매출의 5:5로 하는 정도이며, 필요한 물건은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이는 1937년 말 상하이에 군‘위안소’를 설치하기 위해 포주들이 내건 조건과 상당히 유사하다. 초기 일본인 ‘위안부’ 중에는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전차금을 갚고도 얼마간의 목돈을 모아 귀국했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었다.⁵¹⁾ 그러나 갈수록 상황은 악화하여 패전 무렵에는 포주 75%, 여성들

47) いのうえ せつこ, 『敗戦秘史 占領軍慰安所-国家による売春施設』, 新評論, 2008, 17면에는 최초에 미쓰코시백화점을 ‘위안소’ 건물로 사용하려던 계획이었는데 거절당해 변경했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일본 정부가 천황이 거주하는 황궁이 있는 중심부에 점령군을 대상으로 하는 ‘위안소’가 생기는 것을 정부에서 꺼렸을 가능성도 있다(川元祥一, 앞의 책, 28~30면).

48) 藤野豊, 『性の国家管理-買売春の近現代史』, 不二出版, 2001, 172면.

49) 도우스 마사요, 앞의 책, 58면.

50) 井上節子, 『占領軍慰安所-敗戦秘史 国家による売春施設』, 新評論, 1995, 19면.

51) 1년 계약으로 트럭섬에 간 스즈모토 아야는 “한 달에서 석 달 만에 차금을 갚고 그 뒤에는 버는 대로 가져갈 수 있었다”, “5, 6천 엔, 1만 엔은 허다하고 3만 엔이나 저축한 사람도 있었다.”,

이 25%를 받고 의복이나 생필품 비용도 자신들이 지불해야 했다.⁵²⁾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모집 조건은 파격적이고, 유리한 조건이었을 것이다.

이후 RAA는 도쿄도를 중심으로 43개 시설(‘위안소’ 14개소, 카바레 9개소, 기타 병원과 여관 등)을 설치했다.⁵³⁾ 도쿄 지역 이외에 일부는 아타미(熱海), 하코네(箱根), 이치카와(市川)에 RAA 시설이 설치되었다. 특히 아타미와 하코네의 RAA 시설은 패전 직후에 일본 정부의 주도로 설치된 도쿄의 시설과 달리, 미군 측이 이곳에 점령군 고급장교 휴양소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에 호응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⁵⁴⁾ 이는 패전국 여성을 희생시킨 매춘 시스템이 미일 양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례이다.

‘위안소’가 늘어나면서 성매매 출신 여성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지자, 집이나 일자를 잃은 가난한 계층의 여성들도 모집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정부가 지키고자 했던 ‘일반’여성에게 하층계급의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미군은 점령 후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해 일본 상류층의 주거지를 남기고, 하층민들의 주거지를 목표로 공습했다. 이런 미군의 전략적인 공습은 계급을 바탕으로 한 고통을 생산하는 데 일조했다.⁵⁵⁾ 이렇게 하층계급의 여성은 정부가 보호하려고 한 ‘일반’여성에서 배제되어 ‘성의 방파제’로 흡수되었다. 빈곤에 처한 여성들을 모집하기 위한 전략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위안부’ 체제를 그대로 이용했다. 이 체제 속에서 여성은 필요에 따라 이용당하고 필요가 다하면 버려질 뿐이었다.⁵⁶⁾

이렇게 만들어진 특수 ‘위안소’는 일본 정부의 목표대로 연합군에 의한 성폭력을 막지 못했고, 미군정의 의도대로 성병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미군이 일본에 상륙한 뒤 한 달간 전국에서 3,500명 이상의 여성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

“귀국할 때는 차금을 갖고도 1만 엔 정도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어 한정된 시기에 ‘계약’이 있던 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 ‘위안부’의 자세한 증언은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 센터 앞의 책을 참조.

52) 도우스 마사요, 앞의 책, 51면.

53)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 센터, 앞의 책, 225면.

54) 惠泉女学園大学平和文化研究所, 앞의 책, 111면.

55) 존 다우어 저, 최은석 역, 『패배를 꺾이고: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일본과 일본인』, 민음사, 2009, 46~47면.

56) 문승숙·마리아 혼, 앞의 책, 139면.

했고,⁵⁷⁾ 미군의 성병감염율도 급증해 제8군 주둔 두 달 만에 성병감염율이 1,000명당 26.84명에서 56.3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⁵⁸⁾ RAA의 각 위안소에서도 일제히 성병검진이 이루어졌는데, 예기의 40%, 나머지 여성들도 20%의 감염율을 보였다, 이에 RAA는 1945년 12월에 오기쿠보(荻窪)에 있는 병원을 사들여 성병검진과 치료를 위한 RAA병원으로 만들어 직접 성병예방에 나섰다.⁵⁹⁾

이러한 시점에 ‘위안소’ 이용에 대해 종군 목사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병사들이 ‘위안소’에 몰려드는 사진이 본국에 전해지면서 GHQ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공창제 폐지를 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에 만들어진 점령군 ‘위안소’는 1945년 12월 중순에 모두 폐쇄되었다. 그러나 RAA ‘위안소’는 1946년 1월에 공창제 폐지령이 발표된 뒤에도 유지되었는데, 계속 성병이 만연하자 내려진 미육군사령부의 출입금지명령(Off Limits)으로 1946년 3월 27일 RAA ‘위안소’ 21개소가 모두 폐쇄되었다.⁶⁰⁾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AA는 공창업자 뿐만 아니라 사창업자 이외에 댄스홀, 카바레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위락시설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공창제 이외의 다른 형태의 성매매는 그대로 행해지고 있었다.⁶¹⁾ 즉 RAA는 ‘위안소’의 폐지로 진주군용 사창 집단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요시미 요시아키는 GHQ의 공창폐지령을 의식하여 일본 정부가 1946년 11월 14일에 내린 「사창의 단속 및 발생 방지 및 보호대책」이라는 결정에서 “성을 팔거나 그것을 매개하고, 장소를 대여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성매매는 ‘사회의 부득이한 악’으로 인정해 특수 음식점 등을 지정하고 지역을 한정해 집단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인정한다.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성병검사를 실시하고 접객부는 성매매 이외의 ‘정업(正業)’을 가져야 한다”고 하여 가시자시키(貸座敷)⁶²⁾와 같은 형태는 취하지 않고, 여성들도 등록하지

57) 후지메 유키, 앞의 책, 309면.

58) 도우스 마사요, 앞의 책, 96면.

59) 井上節子, 앞의 책, 52면.

60)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 센터, 앞의 책, 228면.

61) 도우스 마사요, 앞의 책, 96면.

62) 창기가 성매매를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기루(妓樓)라고도 한다. 공창제 하에서 명목상으로는 등록된 창기가 장소를 빌려 성매매를 한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지만, 실제로 이 장소에 구속되어 있었다.

않지만 사창으로서 묵인하는 ‘준공창제’였다고 지적한다.⁶³⁾

V. 점령군 ‘위안소’-아카센-팡팡

특수위안시설의 여성들은 ‘여자 가미카제’ ‘특수정신대’로 불렸는데, 외국인의 공격에 그들의 몸을 바쳐 국가에 봉사한다는 의미였다. 애국심은 어제까지 적이었던 미군과 성관계를 맺는 여성의 수치심을 제거해주는 도구가 되었다.⁶⁴⁾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라를 위해”, “전사하면 야스쿠니에 모셔진다”라는 애국심이 일본인 ‘위안부’ 동원을 위한 억압장치로 기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⁶⁵⁾

미군 측도 공식적으로 매춘을 금지하면서도 특수‘위안소’가 설치된 곳에 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콘돔이나, 소독제를 마련해 성병예방에 힘썼다. 미군에게 제공되는 예방센터의 지도가 오히려 ‘위안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셈이 되기도 했다. 점령 초기 원칙적으로는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제공한 특수‘위안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미군이 반년 만에 공창제 폐지령을 내린 이유는 앞서 설명한 미본국의 비판여론 이외에도 냉전이라는 국제적 맥락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소련 공산주의와 다르게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구호 아래 일본을 점령한 미군은 일본의 점령을 ‘민주화’라는 성공적인 형태로 마무리 지어야 했다. 미군정은 본국에서 논의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혜택 및 소련보다 나은 사상적 우월함을 드높이는 삶의 방식을 일본에서도 실현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 미국 내에서도 일본에서 ‘위안소’를 계속 허용할 경우, 소련이 미국의 위선을 폭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위안소의 갑작스러운 폐지를 명령한 시기는 소련 중장 쿠즈마 텔레비양코(Kuzma Derevayanko)와 소련 기자들이 잇따라 공창제도와 여성 인신매매는 일본을 ‘민주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비판을 낸 시기와 일치한다.⁶⁶⁾ 위안소의 폐지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차원으로 이루어진 일이므로 맥아

(63) 吉見義明, 앞의 책, 229~230면.

(64) 문승숙·마리아 혼, 앞의 책, 140면.

(65)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 센터, 앞의 책, 147면.

(66) 문승숙·마리아 혼, 앞의 책, 160~161면.

더도 더는 묵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1946년 1월 21일 GHQ는 「일본의 공창제도 폐지에 관한 건」이라는 각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본의 공창 존속은 민주주의의 이상에 위배되며, 또한 전 국민의 개별적 자유 신장에도 위반된다.
2. 일본 정부는 공창의 존재를 직접,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허용하는 일체의 법률, 법령을 즉시 폐기, 무효화시키며 또한 해당 법령의 취지 하에 이루어진 일체의 계약 및 합의를 무효화시킬 것.

맥아더 최고사령관을 대리하여

H · W · 알렌 대령⁶⁷⁾

이에 대한 조치로 일본 정부는 1946년 2월 20일을 시작으로 공창제도 관련 법규를 폐지했다. 총사령부가 일본 측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이 교묘한 연출은 성공적이었다. 자유의 몸이 된 요시하라의 매춘여성들은 사진기자의 요청에 응해, 성조기를 배경으로 만세삼창을 해 보였다. 이 사진이 일본뿐 아니라 미본국의 주요 신문을 장식했고,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일본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맥아더 사령부에 있어 공창제 폐지령은 1946년 1월 1일 천황의 인간 선언, 1월 4일 군국주의자에 대한 공식 추방 지시에 이은 적절한 선전자료가 되었다.⁶⁸⁾ 맥아더는 이로써 ‘일본 여성의 인권을 해방한’ 해방군이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남겼다.⁶⁹⁾

그러나 이때 폐기된 것은 「창기단속규칙」으로, 공창제 폐지령에 해당하는 여성은 당시 도쿄도 내의 성매매 여성 2,000여 명 중 공창에 해당하는 여성 400명 정도였다. 이 법령에 의해 유곽이 ‘특수음식점’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공창이 ‘접대부’라는 이름의 사창으로 변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정책이 얼마나 문제적인지 나타낸다. 공창 폐지에 관한 각서에는 개인의 자발적 성매매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어, 메이지 초기의 「창기해방령」 같이 자유의사라는 명목으로 얼마든지 성매매를 할 수 있었다.⁷⁰⁾

67) 도우스 마사요, 앞의 책, 146면.

68) 도우스 마사요, 앞의 책, 147면.

69) 문승숙 · 마리아 혼, 앞의 책, 147면.

일방적으로 해고된 여성들은 미군기지 주변으로 몰려 ‘팡팡’이라는 가창이 급증해 성병이 더욱더 기승을 부렸다. 미군 출입금지령이 내려진 직후에 미헌병 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미일 관계자 간에 처음으로 RAA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MP측 8명, 경시청 14명, 미야자와를 비롯한 RAA 관계자가 참여했다. 미군 측의 지시를 받아 1946년 2월 미야자와는 도쿄 카바레 연맹을 창립하고, 그의 노력으로 7월에는 댄서와 여급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도쿄 웨이트리스 조합이 만들어졌다. 미군 측은 미야자와 RAA 이사진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연맹이나 조합을 통해 점령군 장병을 손님으로 하는 댄스홀이나 카바레의 풍기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즉 조합과 연맹의 설립에는 미군의 교제 상대가 되기 쉬운 그녀들의 성병 예방이라는 목적이 있었다.⁷¹⁾

이렇듯 공창폐지령을 통해 명목상 공창제는 폐지되었으나, 사창의 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GHQ는 여전히 병사들의 성병 감염문제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RAA‘위안소’로 대표되는 일본의 공창제가 폐지되자, 미국의 전통적인 성 정책인 아메리칸 플랜의 성격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에서 공창제를 폐지하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출입금지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성병에 감염된 병사들에 대한 처벌 방식의 부활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육군성에 보냈다. 육군성은 각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여 1947년 1월 31일에 육군장관 명으로 「규율과 성병」이라는 통지를 내려, 병사에 대해 금욕과 예방책의 철저히 하고, 처벌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처벌이 엄격해지자 성병 감염을 숨기는 병사가 늘어나고, 성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자, 1948년에 「규율과 성병」 통지는 파기하고 도덕적 접근을 통한 인격 지도를 중심으로 성병을 예방하라는 통지가 내려졌다. 이로써 미군 병사에 대한 월 1회 성병검사도 폐지되었다.⁷²⁾

미군정이 미군 병사에 대한 성병 예방에 주목했다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단속에는 일본 정부가 나섰다. 1946년 1월 21일 공창제가 폐지되고 일주일의 지난 1월

70) 1872년 마리아 루즈호 사건을 계기로 에도시대 공창제(유녀제)를 지행하는 부녀자의 인신매매와 노예적 구속에 서양국가의 비판이 문명개화의 일환으로 「창기해방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녀제 자체를 없애려는 의지는 없었으므로, 유곽지역을 보존한 채 각 지방이 가시자시키, 창기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자유의지’를 갖고 영업하는 ‘창기’로서 ‘가시자시키’업자와 가업계약 을 맺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71) 도우스 마사요, 앞의 책, 184~85면.

72) 芝田英昭, 앞의 책, 145면.

28일 밤, 도쿄에서 처음으로 ‘거리의 여인’들에 대한 단속이 있었다. 정부가 매춘여성으로 ‘의심’되는 여성들을 단속하는 가운데 성매매 경력은 물론 성 경험이 없는 여성들까지도 다수 체포되어 사회문제가 되었다.⁷³⁾ 공창제를 시행하면서 등록된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기적으로 검진을 시행하고 영업을 제한하는 기존의 성병 예방 대책과는 다른 모습의 성병 예방책이었다. 이는 1947년 5월 6일 미국에서 웰치(Welch) 자매가 공중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성병검진을 강요당하고, 이를 거부하자 구금된 아메리칸 플랜을 기반으로 한, 성병 예방 정책과 동시대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전통적인 성 정책과는 다른 미국 성 정책의 영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⁷⁴⁾ 일본 정부는 성병 대책을 위해서 거리를 서성이는 여성을 강제로 검진시키고, 창부 집중제도의 재건과 그 제도 아래서 성병을 관리한다는 두 가지 정책을 취했다. 이에 따라 1946년 11월 14일, 재차 요시다 내각 차관회의에서 ‘특수음식점가’(통칭 아카센)라는 창부집중지역을 지정해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공창제가 사실상 부활되었다. 같은 해 성병을 관리하고자 GHQ와 RAA, 일본 정부가 협력해서 카바레·댄스홀·특수음식점 등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조함을 결성하게 하고, 요시와라의 매춘업자들도 전국성병예방자치회를 조직한다.⁷⁵⁾ 이렇게 해서 경찰의 풍속 영업허가를 받은 아카센⁷⁶⁾, 보건소의 식품위생법 허가만으로 영업을 하며 밀매춘을 알선하는 아오센(靑線), 예기(藝妓)를 두는 2업지(二業地)·3업지(三業地)⁷⁷⁾, 미군기지 주변 등, 전국에 창부 집중지역이 증가하여 성풍속 산업은 규모가 확대되었다.⁷⁸⁾

이렇게 지정된 아카센 지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관리 밖에 놓인 사창을 ‘팡팡’이

73) 도우스 마사요, 앞의 책 153면.

74) 1947년 5월 6일 새벽 3시 30분 경, 캔자스(Kansas) 주 위치타(Wichita) 시에서 펀 웰치(Fern Welch)와 폴린 웰치(Pauline Welch)라는 자매가 거리에서 ‘방랑’하며 도둑성이 낮은 사람들과 어울려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성병검진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웰치 자매는 성병검진을 거부하여 몇 주간 감옥에 격리된 사건이 있었다. Scott W. Stern, 앞의 논문, p.374.

75) 도우스 마사요, 앞의 책, 203면.

76) 요시하라, 신주쿠 등의 일정 지역을 지도상에 적선(赤線)으로 표시해, 집단적인 매춘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이러한 지역을 ‘아카센 지대’라고 불렀다.

77) 예기의 합숙소와 같은 예기집과 요리집을 함께 영업하는 것을 허가받은 일정한 지역을 2업지, 예기집, 대합, 요리집으로 구성된 3점 영업을 허가받은 지역을 3업지라 한다.

78) 후지메 유키, 앞의 책, 309면.

라 불렀는데, 점령군과 점령군의 지령을 받은 일본 정부·지방 관청은 성병 예방을 위해 가창으로 보이는 여성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검진을 받게 했다. ‘가리코미’(狩り込み) 또는 ‘캐치’(catch, 검거)라 불린 단속의 형태는 군사력과 권력을 배후로 하여 미일 남성이 합작한 조직적 성폭력이었다.⁷⁹⁾ 이렇게 하층민 여성의 몸은 ‘일반’ 여성을 지키는 방파제, 점령군 병사의 심적 위안을 위한 특수 ‘위안부’, 성병보균자로서 박멸해야 하는 대상으로 식민지화되어 갔다. 또한 ‘팡팡’은 남성들에게 ‘성공적 점령’으로 기억되는 GHQ의 점령 서사에 균열을 내는 일본 전후의 문제적 상징이 되었다.

Ⅶ. 「매춘방지법」의 제정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일본은 미군의 출격기지가 되고, 일본을 공산 세력을 저지하는 방파제로 삼으려는 미국의 방침이 선명해진다. 한국에 다수의 미군이 투입되면서 일본은 미국의 경유지가 되었고,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 문제도 더욱 심각해졌다. 한국전에 참가하는 병사에게는 6주마다 5일 동안 일본에서의 휴가가 허용되었다. 미군은 이 휴양을 ‘R&R’(Rest & Recreation)⁸⁰⁾이라고 했다. 한국전쟁의 휴가병들을 위한 위안시설인 R&R 센터 주변에는 바와 카바레가 난립했으며, 가창들은 미군기지 주변의 가정집을 빌려 매춘하는 것으로 영업형태를 바꿨다. 이에 따라 매춘업자들이 카바레, 바, 호텔 등의 시설을 지어 집단적 매춘지대가 기지촌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났다. 후생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전쟁 기간인 1952년 미군 상대의 가창은 7만~8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사령관들은 사지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참전한 병사들에게 성병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고, 귀대 시간에 늦지 않는다면 일본에서의 성매매시설 출입을 묵인하는 경향이였다.⁸¹⁾

79)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 센터, 앞의 책, 228면. 이때 ‘미스 캐치’라 하여 실수로 가창이 아닌 여성을 잡아들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고, 검거되어 성병검진을 받은 수치심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가창이 되었다고 하는 여성의 증언도 있다. 후지메 유키, 앞의 책, 312면.

80)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 휴가를 ‘I&I’(Inter-course(성교) & intoxication(만취))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을 통해 병사들이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짐작할 수 있다(도우스 마사요, 앞의 책, 228).

81) 도우스 마사요, 앞의 책, 228면.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주둔 초기부터 노력을 기울였던 미군 사령부는 1949년 8월 육군총감부 회보에 따라 “제8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미한 성병환자에 대해서는 외래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전환했다. 이는 성병치료제 페니실린의 개발과 보급으로 성병으로 인한 근무배제율이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18%에서 1953년에는 1% 이하로 떨어져, 더 이상 성병이 병력손실에 위협이 되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성병문제를 주도한 사회위생협회의 잡지 『Journal of Social Hygiene』이 폐간된 것도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⁸²⁾ 더욱이 점령이 끝나고 일본이 주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GHQ가 성병예방대책을 직접 내릴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미군은 성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업소에 ‘출입금지’ 명령을 내려,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업소와 행정당국에 성병감염 여성의 적발과 치료를 협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했다.⁸³⁾ 점령 당시 ‘출입금지’ 명령이 병사를 통제하는 수단이었다면, 점령이 끝난 이후에는 업체와 행정당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자 기독교 여성계를 중심으로 「매춘방지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다. 점령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주둔군의 증가와 특수·위안소였던 시설에 일반인도 출입하게 되면서 성매매 여성이 약 5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 법률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입법화의 선두에 선 가미치카 이치코(神近市子) 의원의 발언은 이 법률안의 한계를 드러낸다. “4천만 주부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50만으로 추정되는 매춘부의 처벌은 어쩔 수 없다.”⁸⁴⁾라는 발언에는 성매매 여성이 자신들의 안온한 ‘가정’을 위협하는 ‘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여성계가 주도한 법률 제정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와 ‘갱생’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처벌을 위주로 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생계에 위협을 느낀 아카센의 종업원들은 1956년 1월 12일 도쿄도 여자종업원연합회라는 조합을 만들어 법률 통과를 저지하는 행동에 나선다. 도쿄 아사쿠사(浅草)에서 열린 결성대회에서 의장단 대표 이시이 리사(石井リサ)는 이렇게 말했다.

82) 林博史, 앞의 논문, 110면. 『Journal of Social Hygiene』는 1954년 12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83) 林博史, 앞의 논문, 109면.

84) 후지메 유키, 앞의 책, 370면.

우리는 대부분 가난한 집안을 짊어지고 하는 수 없이 지금의 일을 하며 관계를 돕고 아이를 양육하고 자력갱생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업자의 착취보다 무서운 것은 아오센과 시로센을 지배하는 보스와 기둥서방이에요. 정치가는 정치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시찰단이나 견학단 사람들은 우리에게 당신들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수치스럽지 않느냐, 올바른 직업을 가질 의지가 있느냐, 오래 할 생각이나 하는 등의 질문을 계속해댁니다. 우리가 비뚤어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수치도 모르는 것들, 게으름뱅이, 바보처럼 여기면서 묻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동정보다는 오히려 적의가 강하게 전해져 옵니다. 멍청한 것들을 구제하느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멸시하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의 외침에 솔직하게 귀를 기울여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통일된 목소리가 없었으니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지만, 바야흐로 처벌법이 제정되려고 합니다.”⁸⁵⁾

이 발언에는 이해에 따라 자신들을 이용하고 버리기를 반복한 위정자와 자신들을 적으로 삼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던 중상류층 여성에 대한 분노가 담겨있다. 또한, 다시 주변화되어버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느낄 수 있다. 여성들의 노력으로 3월 24일 일본사회당이 「매춘에 관한 처벌, 보안처분 및 갱생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다.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벌과 보안처분으로 처벌이 약화되고, 보호갱생에 관한 내용도 간신히 포함시켰지만, 갱생대책은 분명하지 않았다. 도쿄도 여자종업원 연합회는 3월 26일 전국적 규모의 전국接客여자조합연맹을 결성한다. 자신들의 처지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급진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1957년 4월 1일부터 「매춘방지법」이, 1958년 4월 1일부터는 벌칙을 정한 단속규칙이 시행되었다.⁸⁶⁾ 이로써 그녀들은 범죄자가 되었지만, 법안을 제정한 사람들의 의도대로 성매매로 유입되는 여성들의 수가 줄지도 않았다. 아카센은 전면 폐쇄되었지만, 이곳은 곧바로 폭력단이 지배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던 ‘보스’와 ‘기둥서방’이 지배하는 세계로 전락했다. 이들에게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조직적 시민의 저항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

85) 후지메 유키, 앞의 책, 381~382면.

86) 후지메 유키, 앞의 책, 387면.

VII. 나가며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미국은 일본을 ‘민주화의 시험대’로 삼아 정책을 실현해 나갔다. 냉전의 흐름 속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을 계기로 ‘민주화’와 ‘비군사화’라는 초기의 점령 정책이 경제회복, 재무장화로 전환하면서 일본은 최대의 수혜국이 되었다. 미군의 점령에 대해서도 자유와 평등과 민주화를 실현한 ‘성공한 점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점령기는 공창제를 폐지하고 여성참정권을 실현하는 등 여성해방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점령은 영토의 점령인 동시에 여성의 몸에 대한 점령이었다. 일본 정부는 국체를 수호하려는 목적으로 점령을 순순히 받아들였고, 전 ‘위안부’ 여성을 비롯해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특수‘위안부’로 제공하면서 전시의 군‘위안부’제도를 부활시켰다. 물론 요시미 요시아키의 지적처럼 군‘위안부’제도와 특수‘위안부’ 제도에는 공설(公設)과 공인(公認)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한정된 지역에 여성들을 집결시키고, 성병검진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⁸⁷⁾

미국도 일본이 준비한 ‘패자의 선물’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추가로 위안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미군의 전통적인 성 정책은 공식적으로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성매매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방책을 마련해 병력손실을 줄이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병이 ‘의심’되는 여성들을 단속하고 격리하는 이른바 아메리칸 플랜이라는 성병 예방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성병 예방을 위한 물품과 처치를 담당하는 예방센터를 매춘지역에 설치하여 지리에 어두운 미군들을 안내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이렇게 GHQ와 일본 정부에 의한 성 정책을 축으로 전후 일본의 성매매 제도가 재편되었다.

일본의 군‘위안부’제도와 미군의 ‘아메리칸 플랜’이 착종되어 ‘성의 방파제’로 소환되었던 전‘위안부’ 여성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층계급의 여성들이 성산업으로 대거 흡수되었다. 이들의 존재는 본국의 성 정책에 회의적인 GHQ의 지시와 이를 실시한 일본 정부의 성 정책에 의해 ‘인정’과 ‘묵인’이 반복되었다. 특수‘위안부’에서 아카센의 접대부, 팡팡이라는 가창이 되는 과정에는 미일 양국의 정책뿐 아니라 특수

87) 吉見義明, 앞의 책, 229~230면.

위안시설협회에 소속된 매춘업자들의 협력도 있었다. 물자부족으로 국민들이 고생하던 시기에도 RAA 시설에는 풍족하게 물자가 공급되었고, 확실한 사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많은 업자가 성산업에 종사하고 각지에 위안시설이 만들어졌다. RAA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라진 것으로 인식되지만, 공창제 폐지 이후에 RAA ‘위안소’가 폐지되면서 업종을 바꾼 사창들을 관리하기 위해 도쿄 카바레 연맹으로 변모했고, 요시와라의 매춘업자들이 전국성병자치회를 조직하면서 미군의 성병 예방 정책에 협조했다. 이로써 특수‘위안부’(공창)와 아카센의 매춘여성(목인사창), 팡팡(가창)은 서로 다른 여성들이 아니라 정책에 의해 주변화된 존재라는 점이 확인된다. 미군정과 일본 정부의 성 정책에 의해서 여성들의 몸이 재배치된 것이다. 점령이 종료된 후 비대화 된 성매매산업에 대한 우려로 「매춘방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당사자인 여성들의 조직된 저항에도 그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 문제는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배 이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군정을 경험한 한국에서 한국전쟁 당시 유엔‘위안부’와 한국군‘위안부’가 등장한 ‘식민지성’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는 아직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빈곤한 아시아 국가 출신의 여성들이 억압적인 방식으로 양국에 들어와 성산업에 종사하는 현재의 상황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현재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런 교차적 관점의 차별에 노출된 여성들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구조를 끊기 위해서도 점령기 위안시설에 관한 더욱 면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귀옥,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의 공조』, 선인, 2019
- 문승숙·마리아 혼 편. 이현숙 역, 『오버 데어: 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미군 제국과 함께 살아온 삶』, 그린비, 2017
-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센터 편. 강혜정 역, 『일본의 군 ‘위안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1
- 존 다우어 저, 최은석 역, 『패배를 겨안고: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일본과 일본인』, 민음사, 2009
- 후지메 유키 저, 김경자·윤경원 역, 『성의 역사학-근대국가는 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삼인, 2004
- 도우스 마사요 저, 노길호 역, 『패자의 선물』, 구월, 1992
- 芝田英昭, 『占領期の性暴力 戦時と平時の連続性から問う』, 新日本出版社, 2022
- 吉見義明, シリーズ日本の中の世界史 『買春する帝国: 日本軍「慰安婦」問題の基底』, 岩波書店, 2019
- いのうえ せつこ, 『敗戦秘史 占領軍慰安所-国家による売春施設』, 新評論, 2008
- 恵泉女学園大学平和文化研究所編, 『占領と性: 政策・実態・表象』, インパクト出版会, 2007
- 藤野豊, 『性の国家管理-買売春の近現代史』, 不二出版, 2001
- 川元祥一, 『開港慰安婦と被差別部落 戦後RAA慰安婦への軌跡』, 三一書房, 1997
- 井上節子, 『占領軍慰安所-敗戦秘史 国家による売春施設』, 新評論, 1995
- Anne Cipriano Venzon, “The United States in the First World War” London: An Encyclopedia, Routledg, 2013
- David J. Pivar “Purity and Hygiene: Women, Prostitution, and the ‘American Plan,’ 1900-1930” Greenwood press, 2002
- Brandt Allan M. “No magic bullet:a social history of venereal disease in the United States since 188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c
- Commission on Training Camp Activities, “War Department, Smash The Line!”, 1917
-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 센터 편. 번역공동체 잇다 역, 『일본인 ‘위안부’-애국심과 인신매매』, 논형, 2021
- 김서형, 「20세기 초 혁신주의 개혁파들과 성병 통제 정책」, 『동서인문』 15,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21
- 심아정, 「일본인 ‘위안부’문제를 어떻게 공공화할 것인가-‘공인’과 ‘은폐’의 연속성을 묻다」 서 울대아시아연구소 전시성폭력과 공공역사 포럼, 2020
- 박정미, 「금욕에서 예방으로:2차 세계전쟁기 미군의 성병통제, 생명권력과 젠더」, 『경제와 사회』 113, 비판사회학회, 2017

林博史, “アメリカ軍の性対策の歴史-1950年代まで” 『女性・戦争・人権』 第7号, 「女性・戦争・人権」, 学会学会誌編集委員会, 2005

Scott W. Stern “The Long American Plan: The U.S. Government’s Campaign Against Venereal Disease and Its Carriers” Harvard Journal of Law and Gender, Vol. 38, No. 2, 2015

Encounter of the Japanes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the American Plan

Kim, Soo-yong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s modern Kousyousei(公娼制) and the Japanese military'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nd existing research results that it leads to the occupation of the occupied army after the defeat, the US military's gender policy was amplified and changed by interaction with the garrison. Since 1945, U.S. troops deployed abroad have had to operate in unfamiliar environments that not only are far away from their families but also feel superior in race and culture, so GHQ's policy has developed under the circumstances of occupied Japan. Through this process, we would like to find out how women, who were called "to the breakwater of sex" to maintain social order, were marginalized and exposed to greater violence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ies and the U.S. military government's gender policy.

Key Words : U.S. 'Comfort women', U.S. military STD Control, American Plan, Kousyousei(公娼制), RAA, the control of venereal disease

